

01 교회소식

주님의 품으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아프리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만민의 사역.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 그 마음을 닦은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03 선교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 뒤 아들의 질병이 완치되고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딸의 질병을 치료받은 해외 성도들의 간증.

04 간증

“능력의 팔로 날 덮으시네~”

은사집회를 통해 급성 담낭염, 하지정맥류를 치료받고 다리 길이가 정상인 되는 등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18호 2020년 3월 29일(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따르는 표적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다!

##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 등을 통해 풍성한 열매



척박한 땅 아프리카, 그곳에서도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다.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는 케냐는 물론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55개국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 만민국 제성경대학을 진행하며 주의 종들을 깨우고 있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가지고 집회를 열어 기도해 줄 때,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이 치료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특히 목회자 세미나 시에는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풀이 받은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돼 교단을 초월한 수많은 목회자가 은혜 받고 회개하며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단들이 하나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 들어서는 적도기니, 가봉, 상투메 프린시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15개국과 케냐 마사이 6개 지역에서 정명호 목사를 초청하여 세미나와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협력교회로 꾸준히 가입하고 있어 기존

자·협력교회와 더불어 선교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우리 교회의 아프리카 선교는 2000년 세계적인 뉴스전문채널 CNN에 보도된 ‘이재록 목사 초청 우간다 연합대성회’ 후 본격화 되었다.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2001 케냐 연합대성회’와 ‘2006 콩고민주공화국 연합대성회’를 통해서 이 목사의 기도로 암, 에이즈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교계가 하나 되고 새롭게 거듭났으며, 이후 정명호 목사가 담임하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

**“성결의 말씀은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까부뚜 니심비루에 비리지 총회장**  
(콩고민주공화국 베사이다 교단)



2015년에 정명호 목사님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의 사역과 성결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마음의 성결이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만민과 함께하기 위해 2016년에는 저희 산하 교회들의 만장일치로 만민 지교회화 되었지요.

이후 5개의 센터에서 만민국제성경대학 세미나를 열어 성결의 말씀으로 교회 지도자 및 주의 종을 교육하니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서 끼똥가 총회장**  
(동아프리카 복음전도협회 회장)



저는 동아프리카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록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만민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신 대로 성결을 강조하시는 이 박사님의 말씀이 무수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록 박사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목회자이시며 이 시대의 참된 설교자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손수건 기도의 위력 대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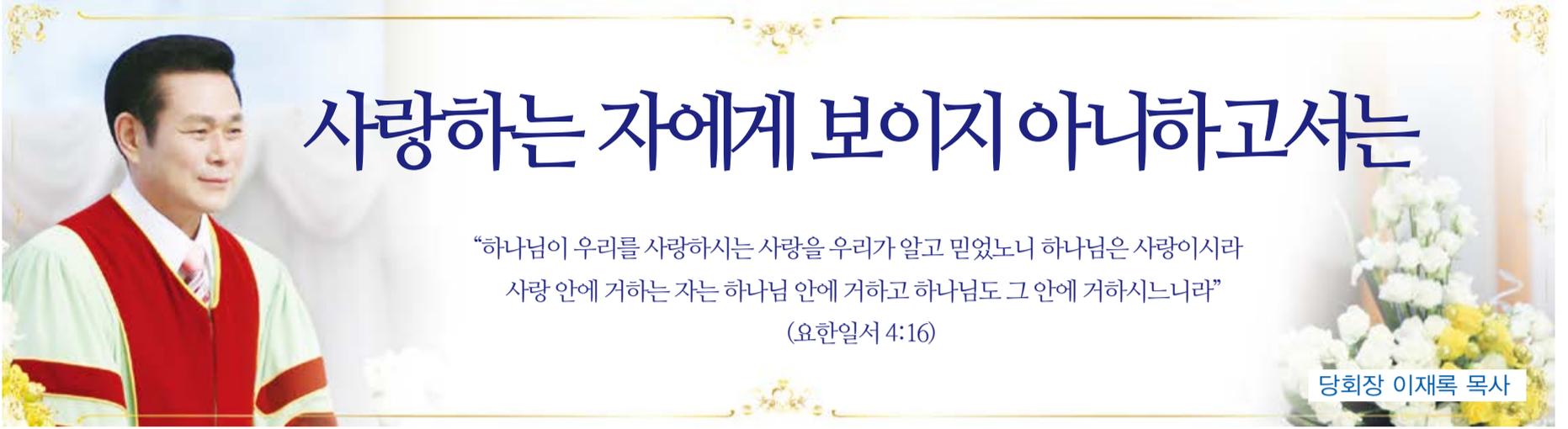
**물라쉬 마데레인 총회장**  
(콩고민주공화국 부카부)



2009년 7월, 정명호 목사님 초청 ‘부카부 손수건 집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은 저는 만민과 하나 되어 사역해 왔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저는 자궁암, 폐수종, 췌장염으로 인해 케냐 나이로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요. 당시 의식도 온전치 않고 거동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2일, 아들이 제 사진을 들고 정명호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해 저는 전화로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일어나 걷고 음식도 먹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비밀한 것까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 그래서 때로는 벗과 같은 자녀,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줄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얻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에녹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에서 자유할 만큼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녹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먼 앞일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지요(유 1:14~1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그와도 동행해 주시며 깊은 사랑과 교통함을 나누실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종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 뜻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결되고 하나님 마음을 닦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밀한 일을 미리 알려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경작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어 그들에게 비밀한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 주셨을까요?

## 1.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알리신 하나님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40일 동안 많은 비가 퍼붓고 땅에서는 큰 샘들이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김으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를 대비한 방주가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도 살아남았지요. 바로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과 이로 인해 모든 사람과 동물이 멸절될 것, 그리고 이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한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창 6:13~21).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일까요?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절하셔야 할 만큼 죄악으로 관영했던 세상에서 노아만이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창 6:9). 노아는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장차 대홍수가 임할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마 24:38~39 ; 벰전 3:20).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지요.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홍수의 심판을 알려 주시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 2.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의 멸망을 알리신 하나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보장하시며 축복해 주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벼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시지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 미리 알려 주십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심히 관영해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성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셔서 미리 피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창 19:29).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 주시는 물론,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 조카를 구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후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곧 백세에 얻은 이삭을 주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심인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 주셨고, 비밀한 것이라도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 3. 시대마다 합당한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여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장차 임할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만세 전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해 왔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알 듯 2천여 년 전 이루어졌습니다(사 7:14 ; 눅 1:30~31 ; 마 5:2 ; 마 2:1 ; 사 53장 ; 시 16:10).

이 밖에도 성경에 기록된 크고 작은 예언들은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일들만 남기고 다 이루어졌지요(마 5:18 ; 민 23:19). 장차 이루어져야 할 일에는 주님의 공중강림과 7년 환난, 천년왕국과 백보좌대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과 그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의 비밀이 담긴 칠십 이레에 관한 내용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단 9:20~27 ; 단 12).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기록돼 있지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교통수단과 엄청난 매스미디어, 그리고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로 지식이 지식을 더하고 모든 것이 너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8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오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한 권을 기록할 만큼 마지막 때에 관해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알려 주시면서 그 후세 사람들이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담긴 내용과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의 감동함 속에 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비밀한 말씀들을 낱알이 풀어 주고 설명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 4.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등 앞으로 될 일들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어느 제자들보다 이들을 그만큼 믿으셨기에 비밀한 것도 보여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 주시고, 항해 중에 배가 파선될 것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도 미리 알려 주셨지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 할 때에는 환상을 통해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밝은 영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며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알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을 경작하시는 근본된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와 구원에 이르기

를 원하시지요(벧후 3:9). 그러니 오늘날도 대홍수의 심판을 미리 알고 대비했던 노아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렸던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고 대비하며 그것을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경작의 역사를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성결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 다해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의 힘으로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온전한 사랑으로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비밀한 것들을 깨우쳐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신뢰해 영의 깊은 비밀한 것까지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아들의 치루가 온전히 치료돼 행복합니다”

찬찰 성도 | 인도 구자라트 주



2018년 11월, 제 아들 아만(7세)에게 심한 치루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치루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아이의 상처 부위는 아물지 않고 감염과 발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말만 하였고 결국 수술을 다시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

이 일로 고심하던 2020년 1월, 저는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대하며 제 아들의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텔리만민교회)로 전화했지요.

그곳에서는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담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한국 만민중앙교회)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을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면서 질병이 죄로 인해 온다(출 15:26)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죄에 대해 알려주는 설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지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험기 낸 일들이 떠오르면서 제 험기로 인해 아들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어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회자복 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진과 함께 아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 요청을 텔리만민교회로 보냈습니다. 이후 아들의 감염 부위는 점점 줄어들며 진물이 마르고 딱지가 앉기 시작했지요.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1년 넘게 낫지 않던 아이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신속하게 치료되고 있음을 보며 신기하고 놀라웠지요.

마침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1월 31일,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참석했습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아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아들의 환부가 온전히 치료돼 딱지가 떨어지며 깨끗해졌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케 되었지요. 이전보다 더 밝고 씩씩하게 뛰어 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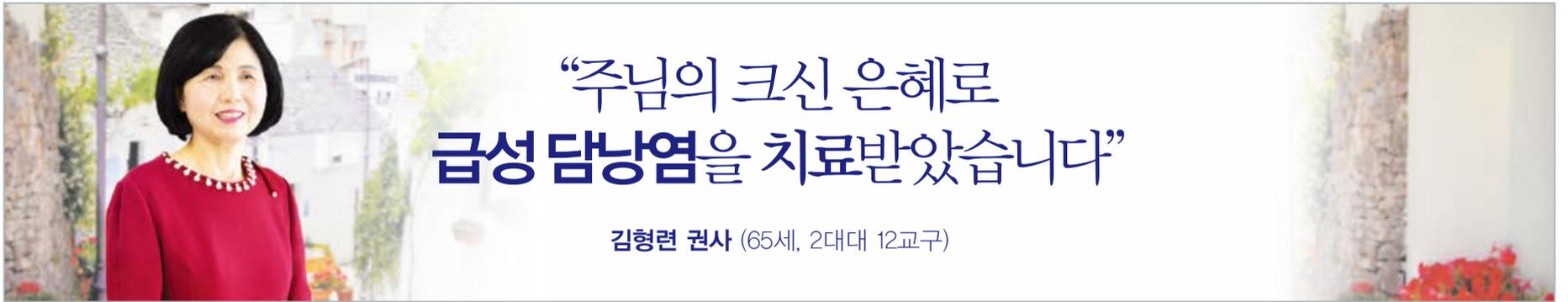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신데, 귀한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뒤 만민의 팬이 된 저는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등 주옥같은 당회장님의 설교들을 계속해 듣고 있으며,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반성 낭창이 치료되었어요!”



Malaysia

말레이시아 시부에 사는 쉬즈윈(8세, 여)은 2년 전부터 홍반성 낭창(홍반과 결핵성 피부병의 하나인 낭창이 나타난 병증으로, 낭창은 허약한 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 얼굴 특히 코를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으로 생기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GCN방송을 통해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에 참석해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치료되어 얼굴이 깨끗해지고 있다.



##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급성 담낭염을 치료받았습니다”

김형련 권사 (65세, 2대대 12교구)

지난 1월 23일 저녁, 복부에 통증을 느꼈는데 25일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 밤새 배를 움켜잡고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급성 담낭염’ (담석, 수술 후 협착, 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완전 혹은 불완전한 협착이 발생하여 담관을 통해 장내 세균이 담즙 내에서 증식하면서 담낭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었습니다.

담낭 벽의 두께가 1.78cm로,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기에 28일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개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 등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회개하였지요.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복님 원장님이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니 충만함이 임했고, 29일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 벽의 두께가 0.5cm로 줄어 있었습니다.

더욱 온전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31일,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에 참석한 저는 감사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감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에는 몸이 매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담낭 벽의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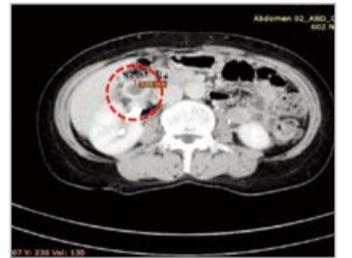
께가 0.3cm로 거의 정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초음파&CT 사진



기도 받기 전 ▶  
담낭 벽의 두께가 1.78cm로 커져 있어 담낭염 소견을 보임.



기도 받은 후 ▶  
담낭 벽의 두께가 0.3cm로 거의 정상 소견을 보임.

## “다리 길이가 정상이 되었어요!”

오윤주 집사 (61세, 2대대 16교구)



저는 어려서부터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의자에 앉으면 오른쪽 발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도 약간씩 뒤뚱거리야 했고, 서 있으면 몸이 한쪽으로

틀어져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지요.

지난 1월, 은사집회를 앞두고 저는 오십견을 치료받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며 은혜받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복님 원장님에게 기도 받았는데 오십견 증세가 사라졌지요. 그런데 더욱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월 31일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 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고 난 것처럼 빠른 느낌이 들면서 고관절에 물파스를 바른 것처럼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 현상은 며칠간 계속되었지요.

2월 2일 주일 저녁예배 때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평소와 달리 오른쪽 발뒤꿈치가 땅에 닿는 것입니다. 귀가 차량에서도 앉은 채 오른쪽 발뒤꿈치를 보니 바닥에 닿아 있었지요. 이에 저는 집에 도착하여 양다리의 길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년 봄, 바닥에 앉아 양쪽 다리를 비교해 봤을 때 2cm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다리 길이가 똑같아져 양쪽 복사뼈가 정확하게 맞닿는 것을 확인하며 너무 기뻐졌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 주셔서 다리 길이가 정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 “하지정맥류가 치료되었어요!”

김군오 집사 (83세, 1대대 6교구)



2019년 말, 몸이 무겁고 다리 통증과 함께 핏줄이 서고 쥐가 자주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지정맥류라며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마음먹고,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2월 24일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벧전 4:8)는 설교를 듣던 중 통회자복이 나왔습니다. 계속하여 기도원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해 행복한 마음으로 2월 은사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 사모하던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 시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에게 기도 받은 뒤, 모든 증상이 사라졌지요. 더 이상 다리 통증과 쥐 나는 증상도 없고 날아갈 것같이 다리가 가벼워 너무도 행복합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של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